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퀀트/자산배분 Analyst 최재원, RA 유지윤



키움증권

미 증시는 휴장, 유럽 증시는 ECB 회의 대기심리 등으로 혼조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7일(월)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GPT-6발 AI 수요 개선 훈풍에도 ECB 통화정책회의 대기심리, WTI 유가 강세 및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 부담 등으로 혼조세(독일 -0.2%, 영국 -0.1%, 프랑스 +0.3%, 유로스톡스50 +0.2%).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8월 고용 서프라이즈에 따른 연준의 9월 금리인상 우려에도,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 출시 효과에 따른 삼성전자(+5.7%), SK하이닉스(+8.3%) 등 반도체 중심의 랠리가 전개된 영향에 힘입어 급등 마감(코스피 +4.6%, 코스닥 +1.1%).

금일에는 전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속 장중 미 10년물 금리 향방, 미-이란 관련 뉴스플로우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업종 차별화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아직 5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9월 이후 시장 색깔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중임. 8월에는 IT가전(+35.4%), IT 하드웨어(+26.5%), 비철/목재(+25.9%), 화학(+18.6%), 화장품(+17.9%) 등이 수익률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증권(-3.2%), 소매/유통(-2.6%), 반도체(-1.5%), 조선(-0.8%) 등이 수익률 최하위권을 기록했던 상황.

그러나 9월 이후(~7일)로는 8월 수익률 상위권이었던 화장품(-7.9%), IT가전(-4.9%), 화학(-4.3%), 비철, 목재(-4.0%) 업종이 최하위권으로 이동하는 등 8월 랠리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여타 업종으로 수급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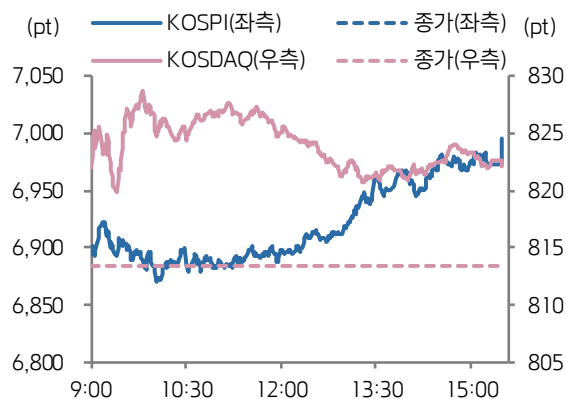
그 가운데 8월 수익률이 부진하면서 주도주 지배력 약화 우려에 휩싸였던 반도체가 9월 이후 5.2% 상승하며, 에너지(+5.7%) 다음으로 수익률 최상위권에 올라온 점도 특징적인 부분. “많이 오른 업종”에서 “못 오른 업종”으로 기계적인 순환매가 나타난 성격도 있겠으나, GPT-6 아스트라가 반도체주에 촉매를 제공한 측면도 존재.

사실 8월 말 이후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잇따른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음에도, 반도체주는 별 다른 주가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음. 그 배경 중 하나는 시장이 AI 반도체주의 실적 호조 자체보다 막대한 AI 투자가 실제 최종 수요와 수익화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었다는 데서 기인.

이런 관점에서 GPT-6 아스트라는 AI가 단순 질의응답형 챗봇에서 복잡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로 진화할 가능성을 높여줌에 따라, 해당 의구심이 일정 부분 완화된 점에 주목할 필요. 에이전트형 AI 확산에 따른 GPU 등 컴퓨팅 수요와 HBM, 서버 DRAM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의 가시성을 높여줬다는 점이 수급, 심리적으로 무거워졌던 반도체주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판단. 전일 코스피에서 2.6조원대 순매수한 외국인이 반도체에서만 2.3조원 순매수에 나서며, 개인의 손실 회복, 포지션 정리 물량(9월 7일, 개인, 코스피 -6.8조원, 반도체 -6.0조원)의 상당부분을 흡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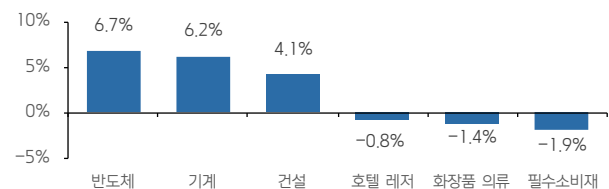
물론 단기 급등한 만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의 일시적인 차익 실현 및 주가 되돌림이 나타날 여지가 존재. 관건은 주가 되돌림 구간에서도 외국인 순매수 연속성이 유지될 지에 있다고 판단. 동시에 반도체가 하루이틀 단기적으로 쉬는 구간에서 IT하드웨어, 전력기기 등 여타 AI 인프라, 또는 소비재, 주주환원 등 여타 주력 업종으로 순환매가 나타나는지도 관전 포인트. 이 같은 선순환 성격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경우, 기존 당사가 제시했던 “9월 중 코스피 7,000pt 상향 돌파 후 안착 성공 + 저점을 높이는 회복 경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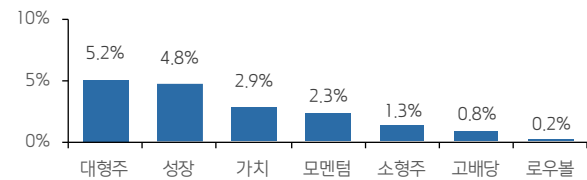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19.97	-2.51%	+17.7%	GM	87.76	+0.62%	+7.92%
마이크로소프트	499.70	-2.04%	+3.32%	일라이릴리	1,149.36	-0.88%	+6.95%
알파벳	338.46	-1.17%	+8.13%	월마트	107.14	-1.18%	-3.83%
메타	616.77	+1%	-6.56%	JP모건	358.64	-0.94%	+11.3%
아마존	258.51	-0.15%	+12%	엑손모빌	159.47	-1.69%	+32.52%
테슬라	354.08	-5.92%	-21.27%	세브론	208.60	-1.29%	+36.87%
엔비디아	230.36	+0.84%	+23.52%	제너럴일렉트릭	107.14	-1.2%	-3.8%
브로드컴	357.90	+0.21%	+3.41%	캐터필러	813.94	+1.72%	+42.08%
AMD	477.57	+4.69%	+123%	보잉	212.25	+0.83%	-2.24%
마이크론	1,016.59	+6.1%	+256.19%	넥스트에라	83.43	-0.7%	+3.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995.39	+4.61%	+66%	USD/KRW	1,346.95	-0.35%	-6.43%
코스피200	1,105.19	+5.1%	+82.38%	달러 지수	98.92	-0.26%	+0.61%
코스닥	822.19	+1.07%	-11.16%	EUR/USD	1.16	+0.08%	-1.05%
코스닥150	1,411.46	+1.32%	-8.78%	USD/CNH	6.71	+0.02%	-3.82%
S&P500	7,718.60	-0.38%	+12.75%	USD/JPY	154.36	-1.22%	-1.5%
NASDAQ	26,506.99	-0.29%	+14.05%	채권시장			
다우	53,414.25	-0.51%	+11.13%	지수	가격	DTD(bp)	YTD(bp)
VIX	15.30	+5.3%	+2.34%	국고채 3년	3.897	+1.2bp	+94.6bp
러셀2000	2,975.65	+0.25%	+19.89%	국고채 10년	4.390	+4bp	+100.5bp
필라. 반도체	11,735.26	+3.37%	+65.68%	미국 국채 2년	4.366	+0bp	+89.3bp
다우 운송	21,011.73	+0.72%	+21.05%	미국 국채 10년	4.782	+0bp	+61.5bp
상해종합	3,932.70	+0.07%	-0.91%	미국 국채 30년	5.242	+0bp	+39.9bp
항셍 H	8,429.73	-1.46%	-5.43%	독일 국채 10년	3.386	+4.7bp	+53.1bp
인도 SENSEX	76,132.81	-0.5%	-10.66%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지수	가격	DTD(%)	YTD(%)
Eurostoxx50	6,403.99	+0.17%	+10.58%	WTI	91.48	+0.2%	+60.63%
MSCI 전세계 지수	1,157.73	+0.35%	+14.1%	브렌트유	97.00	+0.75%	+59.41%
MSCI DM 지수	4,995.00	+0.16%	+12.74%	금	4,476.60	-1.39%	-0.46%
MSCI EM 지수	1,756.85	+1.77%	+25.1%	은	66.05	-1.38%	-6.45%
MSCI 한국 ETF	188.87	+4.6%	+94.27%	구리	659.70	+0.3%	+16.1%
디지털화폐				BDI	3,628.00	+4.01%	+93.29%
비트코인	79,222.63	-0.87%	-9.61%	옥수수	536.75	-0.74%	+16.56%
이더리움	2,494.52	-0.2%	-16.23%	밀	734.00	-2.68%	+29.97%
				대두	1,309.75	-0.49%	+23.04%
				커피	295.60	+0.08%	-6.0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